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케냐

Republic of Kenya

2018년11월30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580천 km <sup>2</sup> 	<b>인구</b> 48백만 명 (2018추정)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정책 
<b>GDP</b> 896억 달러 (2018추정) 	<b>1인당GDP</b> 1,865달러 (2018추정) 	<b>통화단위</b> Kenya Shilling(Ksh) 	<b>환율(U\$기준)</b> 101.7 (2018추정)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2018년 기준 약 4,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개 시설의 부족과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강우량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을 수립하고 주요 경제 분야의 성장 가속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 반열에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작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불법 선거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존 대통령인 Uhuru Kenyatta가 재당선되었음.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 후보인 Raila Odinga 측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양측이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1975. 5. 12)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이중과세방지협약(2017), 투자보호협정(2017)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56,531	162,322	204,940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 입	28,304	104,477	40,192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18.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30건, 10,399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5.4	5.7	5.9	4.9	6.0
소비자물가상승률	6.9	6.6	6.3	8.0	5.0
재정수지/GDP	-7.4	-8.1	-8.3	-7.9	-6.6

자료: IMF, EU

### 2018년 경제성장률은 정치안정성 개선 등에 따라 6.0% 기록 전망

- 케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2014~16년 5%대 중·후반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7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업부문 침체와 대선 무효판결 및 재선거 실시, 야당의 불복에 따른 정치적 갈등 심화 등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9%로 다소 하락하였음.
- 2018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에 따른 농업 부문 회복 및 관광 부문 성장,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안정성 개선 등에 힘입어 6.0%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차, 커피 등 농업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 및 모바일 통신 부문 등도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

- 2017년 케냐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며 전년(6.3%) 대비 크게 상승한 8%를 기록하였음.
- 2017년 5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5%까지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7~12월)으로 하반기에는 다소 안정되었음.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강우량으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안정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

###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소폭 하락 전망

- Uhuru Kenyatta 행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경기부양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3년 -5.7%에서 2016년 -8.3%까지 확대되었음.
- 재정수지 적자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케냐는 2017년부터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가뭄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증가(7~12월 옥수수 보조금 지급) 등으로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7.9%를 기록하였음.
- 2018년에는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조세수입 확대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6%로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사행성 사업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GDP의 1.1% 규모의 조세 수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 상 수 지	-5,938	-4,289	-3,697	-5,017	-4,752
경상수지/GDP	-10.4	-6.7	-5.2	-6.3	-5.6
상 품 수 지	-10,710	-8,375	-7,666	-10,202	-10,093
상 품 수 출	6,219	5,982	5,747	5,792	6,431
상 품 수 입	16,929	14,358	13,413	15,994	16,524
외 환 보 유 액	7,895	7,546	7,150	7,141	7,141
총 외 채	22,097	25,961	30,627	34,824	40,154
총외채잔액/GDP	35.9	40.4	43.2	44.0	44.8
D.S.R.	26.9	26.9	26.3	37.9	42.3

자료: IMF, EIU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2017년 44억 달러),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2017년 16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7년에는 가뭄에 따른 식료품 수입 증가, 국제유가 상승, 표준궤 철도 1구간 완공 및 2구간 착공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6.3%로 전년(-5.2%) 대비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과 상품수출 증가, 관광업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입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5.6%로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양호한 외환보유고 유지 중

- 케냐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송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인해 2011년 41.2억 달러에서 2017년 71.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71.4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4.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임.

## 외채상환능력

###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외차입으로 외채규모 지속적 증가

-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케냐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은 2014년 36.0% 및 26.9%에서 2017년 44.0% 및 37.9%로 지속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44.8% 및 42.3%로 외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인프라 부족, 기술 부족 등 경제성장의 구조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조세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차입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2014년 28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및 채무상환 여력 확보 등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중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하여 대 중국 채무가 증가하고 있음.
  - \* 이자율 7.25%, 만기 10년물 10억 달러 및 이자율 8.25%, 만기 30년물 10억 달러
- 케냐는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 전략국 중 하나이며,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몸바사항에서 우간다 접경 지역인 말라바를 연결하는 표준궤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부두, 도로 건설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케냐의 대 중국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케냐 당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대 중국 외채는 케냐 공공외채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6월 기준 케냐의 공공외채 비중을 보면 다자기구 채무의 비중이 약 40%로 여전히 큰 편이나, 동 비중은 유로본드 발행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중국으로부터의 차입 증가 등으로 감소 추세임.
- 2013년에는 IMF, AfDB 등 다자기구 채무가 케냐 공공외채의 60.5%에 해당하고 양자·상업 채무 비중이 각각 26.6% 및 6.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양자·상업 채무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6월에는 다자기구 채무 비중이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구조적취약성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임에도 농업 전반의 생산성은 낮은 상황

-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이 2017년 기준 GDP의 35.3%를 차지하는 농업 의존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영농법 등으로 농업 전반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
- 주요 수출품목인 차(tea)와 원예작물(화훼, 과일 등) 등 농업이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로, 강우량 등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제조업 등 여타 인프라는 취약한 수준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지만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며,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미비, 숙련 노동력의 부족,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등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에 따르면 케냐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96위 수준임.
- 케냐 정부는 제조업을 6대 성장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인력 육성 및 연구기관 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열발전 위주의 전력 공급 확대사업도 진행 중임.

## 성장잠재력

### 해변, 사파리 등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 케냐는 인도양 연안의 해변과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비롯한 사파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관광산업이 주요 외화획득원\*임.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Economic Impact 2018 Kenya' 기준 케냐의 관광산업은 2017년 GDP의 9.7%에 달함

- 2013년 이후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Shabaab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에볼라 발생 위험국으로 지정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었으나, 2016년부터 치안상황 개선과 국제회의의 관광 증가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회복 추세에 있으며, 케냐 정부도 마케팅 프로그램, 주요 관광지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케냐 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관광산업 수입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0%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대비 9.7% 증가한 147만 명을 기록하였음.

## 성장잠재력

### 동아프리카의 ICT 거점국가를 목표로 투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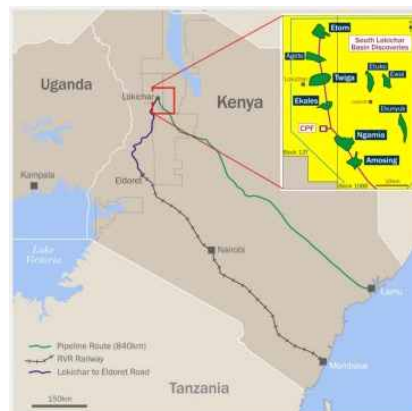
- 케냐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0명당 81명에 이르는 등 동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정부는 ICT 산업을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동아프리카의 ICT 거점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4년에 발표된 국가 정보통신 마스터플랜(Kenya National ICT Masterplan)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적 방식의 공공서비스 확대, ICT 산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나이로비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콘자(Konza) 지역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을 위한 약 5천 에이커 규모의 신도시 건설과 케냐 과학기술원 설립이 진행중임.
- 우리 정부는 '케냐 과학기술원' 설립 관련 당행 경험사업기금(EDCF)을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설립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 석유자원 개발 본격화 및 원유 시범 운송사업 시작

- 최근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사작업 진행에 따른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음.
- 케냐의 경우 영국 석유·가스 탐사 회사인 Tullow Oil사가 2012년 Lokichar 일대의 Ngamia 광구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매장량 발견을 이어가고 있음. Tullow Oil은 동 지역의 잠재매장량(2C)을 5.6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 2018년 6월 Lokichar에서 Mombasa\*까지의 육로와 철도를 통한 원유 시범 운송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올 연말까지 40만 배럴의 원유를 Mombasa 지역에 축적한 후 입찰 과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임. 또한 Lokichar와 Lamu항을 연결하는 892km의 송유관이 완성되면 2021~22년부터 송유관을 이용한 일 8~1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양을 접하는 케냐 제2의 도시로, 주요 항구와 국제공항이 있음.

### 케냐 원유 매장지역 및 운송로 현황(예정)



자료 : OGInsights



##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을 통한 구조개혁 추진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관광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동 분야의 성장 가속화를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인프라 및 기술 부족 등 경제성장의 구조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증으로 공항, 항구, 도로, 철도, 발전용량 등의 신설·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1차 중기 사업(2008-12년)을 통해 Jomo Kenyatta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확장 및 현대화, 몸바사 항 시설 개선, 총 24만 km의 도로 확장·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발전 용량도 2008년 1,268MW에서 2012년 1,690MW로 증대되었음.
- 2차 중기 사업(2013-17년) 기간에는 몸바사 항 제2터미널 완공, 중/고전압 송·배전 네트워크 확충 (2012년 대비 45.6% 증가) 등이 진행되었으며, 나이로비와 몸바사를 잇는 표준궤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1구간이 2017년 5월 완공되었음. 나이로비와 나이바샤(Naivasha)를 잇는 2구간 사업이 진행중으로 2019년 완공될 예정임.
- 케냐는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의 순위가 108위(2016년) → 92위(2017년) → 80위(2018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의 순위도 99위(2015-2016년) → 96위(2016-2017년) → 91위(2017-2018년)로 개선되었음.
- 현재 Vision 2030의 3차 중기 사업(2018~22년)이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GDP 성장률 10%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 저축 및 투자율 제고, 광물자원 인프라 개발 및 고용 창출,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 향후 5년 간의 경제개발 계획인 Big Four 발표

- Kenyatta 대통령은 2017년 12월 제조업, 주택, 헬스케어, 식품 등 4개 부문의 향후 5년 간 경제개발 계획을 담은 Big Four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소요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임.
- (제조업)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9%에서 2022년 15%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증공업 부문 전력요금 인하, 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진
- (주택공급) 주택개발기금 설립,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율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 주택 공급 확대 추진
- (헬스케어) 범용 의료 서비스 제공, 민간보험사 구조 개편, 공동 보건기관 수 증가 등 추진
- (식품안정) 관개시설 개선, 농업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식품 보조금 모델 개선 등을 통한 식품가격 안정, 대량 공급, 소기업 생산성 개선 등 추진

## 정치안정

###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 및 재선거 실시

- 2017년 8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기존 대통령인 Uhuru Kenyatta가 54.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야당 대통령 후보인 Raila Odinga와 10대 부통령인 Kalonzo Musyoka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 앞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 2017년 9월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IEBC)가 선거 과정에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대선 결과의 무효를 선언하고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7일 재선거가 실시되었으나, Oding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이 미진하여 부정선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Kenyatta가 99%의 득표율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 Uhuru와 Raila의 화해 국면으로 정치안정성 개선

- 재선거 후에도 Odinga 측은 Kenyatta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으며, 급기야 2018년 1월에는 본인이 '케냐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는 등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음.
- 그러나 지난 3월 Odinga가 Kenyatta 대통령의 집무실에 방문, 두 인사 간 급격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대선으로 야기되었던 정치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Kenyatta 대통령 측은 화해를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Odinga 측은 야당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사회안정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위협 상존

- 케냐는 2011년 10월 라무 섬을 방문 중이던 프랑스 관광객의 납치를 계기로 소말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샤바브(Al-Shabaab)에 대한 대테러전을 시작하였음.
- 미국, 영국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2012년 9월 말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와 알샤바브 집단의 본거지를 장악하며 알샤바브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잔존 세력이 케냐와 주변국에 대해 보복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
- 알샤바브 조직원들은 2013년 9월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2015년 4월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2017년 1월 소말리아 국경 케냐군 공격(50명 이상 사망 추정) 등 대규모 살상을 자행하며 케냐의 치안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사회안정

### 부족 간 갈등은 다소 완화 추세

- 케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Kikuyu족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3년 독립 이후 정치 관련 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Kenyatta 가문(Kikuyu족)과 Odinga 가문(Lou족)의 오랜 라이벌 관계로 인해 대선시마다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일반 대중들의 정치의식 향상으로 갈등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대선에서는 선거 후 부정선거 시비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약 1,100명이 사망하고 약 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2013년 대선시에는 사망자가 300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작년 대선에서는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작년 대선을 앞두고 케냐 47개 주의 청년 대표들이 모여 선거 관련 폭력사태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치 관련 부족 갈등 방지를 위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이자 실세

- 케냐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 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 인도양을 접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역협력 체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 영국과 더불어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 협력관계 유지

- 케냐는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 케냐는 미국의 동부 아프리카 지역 대테러 파트너이자 주요 원조 수혜국으로, 2015년에는 Barak Obama 당시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음.
- 중국은 케냐의 주요 수입 상대국이자 최대 양자채무국으로 원조, 투자부문에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2013년 Kenyatta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5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받은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케냐를 방문, 몸바사-나이로비 표준궤 철도(SGR) 프로젝트(38억 달러, 중국측 대출 90%)를 비롯한 총 17건의 투자·지원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앞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케냐는 2004년 파리클럽과 3.5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2018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대출규모는 단기 2.2억 달러, 중장기 34.8억 달러 등 총액 36.9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0.4억 달러에 대해 연체 중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2 (2018.02)	B1 (2017.10)
Fitch	B+ (2018.02)	B+ (2017.07)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4년 6월 케냐에 대하여 6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2018년 2월 Moody's는 높은 정부지출과 채무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여 케냐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하였으며, Fitch 및 S&P는 B+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케냐 경제는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 부문의 성장 및 가계소비 활성화 등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2017년에는 대선 무효 판결 및 재선거 실시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9%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8년에는 6.0%의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
- 케냐 정부는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을 수립하여 주요 경제 분야의 성장 가속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 반열에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 지역에서 유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자본재 및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작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불법 선거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났으며, 재선거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기존 대통령인 Uhuru Kenyatta가 재선되었음. 이후에도 여당과 야당 후보인 Raila Odinga 측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양측이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며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케냐	탄자니아	가나	나이지리아
	(OECD 6등급) (수은 D2)	(OECD 6등급) (수은 D1)	(OECD 6등급) (수은 D2)	(OECD 6등급) (수은 D2)
GDP 규모(억 달러)	896	567	465	4,227
1인당 GDP(달러)	1,865	1,110	1,645	2,180
경제성장률(%)	5.5	6.4	5.9	1.9
소비자물가상승률(%)	5.0	4.8	11.8	12.4
재정수지/GDP(%)	-6.6	-4.4	-4.5	-5.2
경상수지/GDP(%)	-5.6	-3.2	-4.6	1.9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4.1	5.3	4.2	6.8
외채상환액/총수출(%)	42.3	12.9	19.5	13.8
총외채잔액/GDP(%)	44.6	37.5	44.8	15.4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120.6	61.5	55.5	32.1